

Dubai유, 50달러대 유지 “강세”

6월16일 50.77달러로 0.02달러 상승 ... WTI 상승에 Brent 하락

5월16일 국제유가는 미국의 석유제품 재고감소 영향과 하반기 석유 수요증가 전망에 따라 상승세를 나타냈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NYMEX의 WTI(미국 서부텍사스 중질유) 선물유가는 전일대비 배럴당 1.01달러 상승한 56.58달러, IPE의 Brent 선물유가는 0.98달러 상승한 56.22달러에 거래가 종료됐다.

Dubai 현물유가도 미국의 원유 재고감소 및 OPEC의 생산쿼터 확대 결정으로 0.02달러 상승한 50.77달러를 형성했다.

OPEC은 <6월 석유시장 보고서>를 통해 2005년 세계 석유 수요가 8394만b/d에 달하나 4/4분기 수요는 8591만b/d로 4월 전망치에 비해 15만b/d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제유가 변화

(단위: 달러/bbl)

구 분		6/13	6/14	6/15	6/16
현 물	Dubai	49.34	51.02	50.75	50.77
	Brent	51.95	53.38	54.83	53.78
	WTI	55.50	55.01	55.53	56.59
	Oman	50.52	52.10	51.78	51.79
NYMEX 선물(WTI)	7월	55.62	55.00	55.57	56.58
	8월	56.82	55.97	56.41	57.43
환율(원/달러)		1023.30	1022.80	1023.80	1024.00

+ 적용환율은 전신환 매도 기준

한편, OPEC은 5월 원유 생산량이 3000만b/d에 달한 것으로 추정하고 4/4분기에 비OPEC 산유국의 생산량을 제외한 대 OPEC 수요량(Call on OPEC)은 3060만b/d로 전망했다.

<화학저널 2005/06/17>